

올해 양돈농가가 흑자라니?

농경연 전망 발표 '탁상행정' 비난 쇠도
너무 낮은 생산비... 농관원의 농가실태조사 출발부터 오류
농업전망 현실화 · 정부 생산안정대책 촉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농업 전망 2008'을 통해 올해 비육돼지(100kg 기준) 한 마리당 소득은 2만8,000~4만1,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비육돼지 생산비 17만4,000원(2006년 기준)을 기준으로 올해 5~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값 인상률과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새끼돼지 구입비 및 산지 돼지값 하락률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 양돈농가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늘어나는 적자로 양돈농가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양돈현실을 무시한 분석이라고 지적하고 비난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내 양돈업 현실 제대로 반영 안돼... 양돈농가 분노

양돈협회를 비롯한 양돈농가들은 "농경연은 사료값 폭등으로 전체 양돈농가의 상당수가 적자경영을 하고 도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농경연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지난 1월 30일 "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 양돈장의 도산과 폐업이 늘고 있고, 농가의 90% 가량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올해 비육돈 두당 수익에 대해 흑자는 커녕 5만1천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료가격 추가 인상에 따라 그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경연의 최근 이 같은 전망과 분석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자경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농장 현실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분석이 나올 수 없다"며 양돈농가들도 농경연의 발표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

김건년 안동지부장은 "농경연의 전망대로라면 16만~17만원 들여서 100kg짜리 돼지를 키워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같은 분석은 나올 수 없다"고 농경연의 '탁상 연구'를 비난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1,000두 규모의 양돈농가가 보통 월50톤의 사료를 쓴다면 현재 사료비를 450원/kg로 계산할 때 매달 2천만원씩의 적자를 보

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그 적자폭이 더욱 늘고 있어 규모에 상관없이 양돈농가들이 파산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양돈협회는 사료가격 폭등과 돼지 값 하락 등 경영악화로 줄줄이 도산과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망은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라며 양돈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국내유일의 농업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농경연의 무책임한 발표를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폐업위기에 처한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즉각 돈가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을 시행하고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너무 낮은 생산비... 농관원의 농가실태조사 출발부터 오류

양돈협회가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양돈농가 평균 MSY 14두/년, 사료가격 430원/kg 기준의 양돈농가 생산비는 25만6천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수입은 20만4천원(비육돈 지육가격 3,000원, 지육률 68% 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육돈(100kg) 순수익(조수입-순수익)은 두당 약 5만2천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사료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이 양돈농가들은 농경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육돼지 생산비(17만4,000원)를 소득 전망치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회에서는 지난해 이미 농관원의 비육돈 생산비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경연의 소득 전망치는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농관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육돼지 생산비는 사료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2006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돈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가능성도 커 농가들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는데 농경연의 농가 소득 전망치에는 올해 사료가격 인상폭을 5~10% 가량으로 의도적으로 적게 잡는 등 이 같은 외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농가가 적자 보는 것이 현실

양돈협회는 비육돈 생산비 기준을 달리하면 올해 농경연이 전망한 산지가격이 20만원대 이상인 것을 근거로 흑자를 보는 농가보다 적자를 보는 농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료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돼지를 키워 손실을 보는 농가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은 양돈농가의 생존 및 우리나라 양돈업의 존속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위기에 몰린 양돈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수매 비축으로 돈가를 안정시키고 사료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돈**

